한국팹리스산업협회 Korea Fabless Industry Association	보 도 자 료	https://www.k-fabless.com/kr

보도 일시	즉시	배포 일자	2026.07.24.(금)
담당 부서	경영전략본부 전략기획실	책임자	실장 이지선 (031-706-9777)
		담당자	PM 이남희 (031-706-9777)

한국팹리스산업협회·KOSA·AI+X 투자사협의회, AX 특화 투자생태계 조성 추진

- AX 특화 투자생태계 조성 위해 3개 기관 뭉쳐...1,000억 원 규모 전용펀드 조성
- 유망기업 발굴부터 투자, 사업화, 글로벌 진출까지 전주기 성장지원 체계 구축

한국팹리스산업협회(회장 김경호)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회장 조준희) 및 KOSA 산하 AI+X 투자사협의회(공동회장 최치호·조남훈)와 'AX(AI 산업융합) 특화 투자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7월 23일 서울 송파구 KOSA 본원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팹리스산업협회 김경호 회장과 KOSA 조준희 회장, AI+X투자사협의회 최치호·조남훈 공동회장을 비롯한 각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AI+X 투자사협의회는 KOSA가 AX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2월 출범한 민관 합동 협의체다. **한국과학기술지주(KST)**와 **케이그라운드벤처스(KGV)** 등 30여 개 주요 투자 기관이 참여하며, AX 전용펀드 조성과 국내 AI기업의 글로벌 진출 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협약은 AI·SW 기업과 팹리스·딥테크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하고, 유망 혁신기업의 발굴부터 연구개발(R&D), 투자, 기술사업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성장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AX 투자생태계 구축 및 스케일업 프로그램 운영

▲1,000억 원 목표 AX 전용펀드 조성 및 글로벌 PoC 연계 ▲유망기업 발굴과 TIPS·M&A·IPO 등 단계별 성장지원 ▲전주기 투자 및 Exit 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각 기관이 보유한 산업 네트워크와 전문역량을 결합해 팹리스·딥테크 기업과 AI·SW 간 융합사업을 발굴하고, 유망기업이 기술개발 이후 실증과 투자, 사업화 및 시장 진출로 이어갈 수 있는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관별 역할에 따라 한국팹리스산업협회는 팹리스 기업의 기술·제품과 산업 현장 수요를 발굴해 AI·SW 분야와의 융합 및 실증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KOSA는 AI·SW 기업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업 간 협력과 시장 연계를 지원하며, AI+X투자사협의회는 투자기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유망 기업 발굴과 전용 펀드 조성, 후속 투자 연계를 전담한다.

김경호 한국팹리스산업협회장은 “팹리스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함께 실증, 투자, 사업화 및 시장 진출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며 “팹리스 기업의 우수한 기술과 제품이 AI·SW 산업 수요 및 전문 투자기관과 연결되도록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준희 KOSA 회장은 “AI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를 구현하는 반도체와 딥테크 역량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AI·SW 기업과 팹리스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하고 새로운 AX 융합사업과 혁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AI+X 투자사협의회 최치호 공동회장은 “AI+딥테크 시장이 실리콘밸리와 중국을 중심으로 속도경쟁으로 치닫고 있으며 AI+X 투자사협의회가 민관협력의 한국형 AX 투자생태계를 적극 이끌겠다”고 말했다.
조남훈 공동회장은 특히 “한국의 AX생태계 구축을 위해 정책펀드 뿐 아니라 산업자본도 펀드와 오픈이노베이션에 적극 참여해 미래 성장동력도 확보하면서 딥테크 AX 투자회수 생태계 선순환구조에서 혁신 성과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 기관은 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공동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AX 전용펀드 조성과 유망기업 발굴, 투자 연계 등 세부 협력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끝)

붙임. 한국팹리스산업협회-KOSA-투자사협의회 협약식 사진